

##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4)

- 읽을 말씀 마 5: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원수 사랑과 궁극적인 구원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실제로 존재하며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4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⑥ 율법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 완전!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창 17:1). 또,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신 18:13).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셨습니다(마 5:48). 완전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완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 거의 모든 목회자와 신자들이 완전을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진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 ⑦ 과연 완전은 이생에서 불가능한가?

**마 19:16-21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양용의 교수님은 이 구절과 연관시켜 완전을 구원에 필요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20의 ‘더 큰 의’는 다름 아닌 5:48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마 5:20). 문맥상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온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특이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웃사랑에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거나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또,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수준의 원수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이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완전일 뿐 완전성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 (사랑의 범위)과 완전 성화가 이생에서 가능함을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 입니다. 그런데 48절은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이 실제로 존재하며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자 합니다.

#### ㉠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매우 기초적이고 명백한 사실입니다. 곱선희 목사님은 「천국의 윤리」에서 확실하게 이 원리를 완전성에 적용하여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완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가 온전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 ㉡ 성경이 거듭 완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완전성에 대한 성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처럼 성경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입니다.

**골 1:28 “우리가 …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설교와 권면의 목적이 성도들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 설교하고, 성도들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 성경이 거듭 완전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완전에 대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완전을 명령할 뿐 아니라 완전한 자들(완전해진 자들)에 관하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 6:9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욥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눅 1:5-6 “…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고전 2: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완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은 성경적인 술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에도 완전한 자들이 있었다!**

완전이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마지막 증거는, 교회 역사상 완전에 도달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날드 레이븐힐의 「기도로 부흥하라」 라는 책에 보면 존 플레처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훌륭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 하였다. ‘나는 플레처처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

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원의 이편에서 이러한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찰스 피니의 책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는 “나는 경건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죄라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지금까지 나는 인식할 만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단다.’”라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또, 로버츠 리어든의 「아주사 부흥」이라는 책에는 포우비 팔머에 대해 “그녀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리의 교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완전한 성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와그너 박사의 고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생전에 완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담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실은, 어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 거룩함은 뭔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웁습니다.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땅에서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거룩의 목표를 상향조정하십시오. 완전성화를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욱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나눔과 적용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실제로 존재하며 성경과 교회사에도 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완전 성화가 내 삶의 목표인지 점검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